

## 탈식민기 세계여행기 개관

- 단행본 세계여행기와 시기별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차 선 일\*

### 차 례

- |  |   |
|--|---|
| 1. 서론                                  | 3. 1960-70년대 세계여행기의 양상:<br>김찬삼의 '세계일주문전여행기'와<br>세계여행기의 탈정치화 |
| 2. 1945-1960년 세계여행기의 양상:<br>아시아에서 미국으로 | 4. 결론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탈식민기(1950~1980)에 생산된 단행본 세계여행기의 흐름과 양상을 일별하여, 시기별 특징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탈식민기 세계여행기의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단행본 세계여행기의 전반적인 흐름과 양상을 개관하여 본격적인 후속 연구의 밑거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탈식민기 세계여행기는 두 가지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 하나는 세계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계몽적 매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순수한 개인적 글쓰기로서 미학적인 매체라는 점이다. 전자는 1950~60년대 세계

\* 경희대학교 강사

여행기의 특징이고, 후자는 1970년대 세계여행기의 주된 양상이다.

모든 세계여행이 국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또 통제되는 1945-50년대 세계여행기는 국가의 외교 업무와 대외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에 관한 기록으로서 시찰기에 가까웠다.

1960년대 세계여행기의 주목할 텍스트는 김찬삼의 세계여행기다. 김찬삼의 ‘세계일주기’는 세계여행기의 분야에서 정전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텍스트로, 그의 등장은 탈식민기 세계여행기의 역사를 그 전과 후로 나누는 분기점이다. 그의 세계여행기는 기본적으로 세계 지역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의 보고였다. 또한 김찬삼의 세계여행기는 미국과 유럽의 서술 비중이 적다는 점에서 표면상 서구중심주의적 시각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김찬삼 이후 세계여행기는 탈정치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천경자와 최인호의 여행기 등은 공적 책무 없이 자유롭게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여행에서 느낀 주관적인 감회와 여행담을 적었다. 1960-70년대 세계여행기는 구미중심의 지역적 편중에서 벗어나 ‘세계’의 영역을 확장했다. 내용면에서도 정치 담론이나 교양으로서의 성격에서 벗어난 순수한 여행담이 등장하며 여행기들이 다채롭게 분화했다.

주제어 : 세계여행기, 탈식민기, 교양으로서의 세계, 예술로서의 세계, 김찬삼

## 1. 서론

탈식민기(1950~1980)<sup>1)</sup>의 문화계와 출판계에서 주목할 현상은 세계여

1) 해방 이후 시대의 역사적 성격을 규정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대체로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해방기, 미군정기, 전후, 냉전시대, 분단체제, 산업화 등 여러

행기의 범람이다. 과워엘리트에서부터 고위관료와 일반공무원, 지식인과 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이 세계 곳곳을 다녀와 그에 대한 견문과 감상을 기행문, 일주기, 만유기, 방랑기, 인상기, 견문기, 별견기(瞥見記), 편력기, 수상록, 야화, 통신, 서한 등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로 남겼다. 이 세계여행기들은 신문과 잡지의 연재란을 줄곧 차지했고, 책으로 출간되면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대중독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인기를 얻었다.

여행기는 타자와의 만남과 외부의 낯선 장소를 대면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문화적 장치다. 익숙한 삶의 공간에서 어떤 정체성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주체는 여행[변화]을 통해 삶을 재건하는 힘과 퇴색한 일상을 재의미화하는 성찰을 획득하곤 한다.<sup>2)</sup> 문화 현상으로서 세계

---

용어들을 혼용하며 일정한 단위로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냉전 종식에 이르는 시대를 ‘탈식민기’로 규정한다. 세계여행사의 관점에서 볼 때 1945년 이후의 시대는 이른바 국제관광(global tourism)의 대중화 시대다. 에밀리 S. 로젠버그 엮음, 조행복·이순호 옮김, 『하버드-C.H.베크 세계사: 1945 이후』, 민음사, 2018, 600-606쪽. 주지하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새로운 질서와 형태로 재편된다. 제국주의의 권역이 해체되고 식민지가 독립하면서 세계 지리는 낯선 국경선으로 재분할되었지만,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사람과 물자의 초국적 이동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세계 각 지역을 연결하는 물적·인적·사상적 교류망은 더욱 복잡하고 긴밀한 방식으로 짜여나갔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세계여행은 국제관광의 형태를 중심으로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인과 유럽인을 중심으로 한 해외여행이 급증하였고, 뒤이어 아시아인도 가세하면서 국제관광객의 주요 계층이 중산층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 세계를 양분하는 냉전의 진영 논리가 견고했지만, 사람과 물자의 초국적 이동은 오히려 가속화되면서 문화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본고가 1945년 이후의 시대를 가리키는 용어로 ‘냉전기’보다 ‘탈식민기’를 선호하는 것은 세계여행이 가능해진 시대적 조건으로서 세계화의 흐름을 부각시키려는 일차적 의도가 있다. 또한 탈식민성을 단순히 (신)식민주의의 정치적 문화적 유산을 극복하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제3세계 신생독립국이 세계성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재편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대성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깔려 있다.

2) 여행은 단지 지리적 이동만을 뜻하지 않는다. 지리상의 장소들을 이동하는 육체적 모험은 또한 정신의 영역에서 펼쳐지는 지적인 모험을 수반한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박옥출 옮김, 『슬픈 열대』, 한길사, 1998, 211쪽. 때로 여행은 정체성

여행기의 유행 역시 이러한 여행기 특유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세계여행기에 대한 문화적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세계의 급격한 변화나 주체의 자기 정위가 문제 상황으로 부상하는 것과 연관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여행기가 유행한 시기는 근대 초기(근대계몽기와 1920-30년대)와 탈식민기(1960-70년대) 그리고 탈이념 시대(1990년대)로, 모두 시대적 전환기에 해당된다.

예컨대 1990년대 후일담 문학과 소설가소설 등 내면을 성찰하는 소설에는 여행서사의 형식이 두드러졌다.<sup>3)</sup> 그것은 냉전질서의 종식과 이데올로기의 해체로 “욕망의 지향점을 상실”<sup>4)</sup>하면서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성찰의 이야기였다. 또한 1989년 해외여행의 완전 자유화<sup>5)</sup>가 실시되고 1995년 문민정부의 ‘세계화 선언’이 이어지면서 해외여행의 붐이 조성되자, 한비아 등 여행전문가의 여행기들이 큰 인기를 얻었다. 냉전 질서에 구축되어 있던 ‘세계’의 이데올로기적 족쇄가 풀리면서 비로소 개인들은 지구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여행서사와 여행기 등은 탈이념시대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자양분을 제공했다.

근대 초기에도 여행기는 일정한 문화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했다. 이제 막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체제에 편입된 주변부 약소민족인 조선인에게 여행은 낯선 근대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희소한 학습의

---

의 균열과 공동화(空洞化), 해체와 소멸을 야기할 만큼 강력한 충격을 안겨주는 죽음과 재탄생의 서사를 낳기도 한다.

3) 1990년대 여행소설과 여행서사의 양상에 대해서는 김옥선, 『여행 서사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과 지역 식민화-1990년대 여행 서사를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14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참조.

4) 김옥선, 앞의 글, 167쪽.

5) 해외여행에 대한 개방과 자유화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부터다. 1981년에 해외여행 추천제를 폐지하고 복수여권 발급 원칙을 도입했다. 1987년에는 상용여권의 신청 요건이 완화되고 점차적으로 확대되던 관광연령 제한은 1988년에 40세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1989년에 이루어진 해외여행 자유화는 병역 미필자 등은 제외되었다.

기회였다. 근대화를 달성하고 문명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서구 세계를 경유하는 경험과 그로부터 채득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했다. 소수의 예외적 조선인이 체험한 세계여행과 그 기행문은 ‘교양으로서의 세계’<sup>6)</sup>를 배우기 위한 대중계몽의 수단이었다. 한국 최초의 세계여행기인 민영환의 『해친추범』[1896],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 등은 서구의 문명을 학습하고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조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계몽서였다.<sup>7)</sup> 식민지 시대에 생산된 여행기의 역할과 기능도 마찬가지였다. 김동성의 『Oriental Impressions In America』(동양인의 미국 인상기, 1916)<sup>8)</sup>, 이순탁의 『최근세계일주기』(1934), 허헌의 『세계일주기행』(1929), 나혜석의 『구미여행기』(『구미시찰기』(1930)와 『구미유기』(1932-1935)), 박인덕의 『세계일주기』(1941) 등<sup>9)</sup> 식민지 시대 세계

6) 김동성, 김희진·황호덕 옮김, 『미주의 인상-조선 청년, 100년 전 뉴욕을 거닐다』, 현실문화, 2015, 8쪽.

7) 민영환과 함께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 사행에 동행했던 김득련도 『환구일기』와 『부이기정』의 기행문, 한시를 엮은 『환구금초』를 남겼고, 윤치호도 그의 『일기』에 세계 나라를 보고 느낀 바를 기록했다. 민영환, 조재곤 편역, 『해친추범-1896년 민영환의 세계일주』, 책과함께, 2007, 14-15쪽. 『서유견문』은 서양문명에 관한 개론서이지만, 유길준의 일본에서의 간접적인 서양 경험, 미국에서의 직접 체험, 그리고 짧은 유럽 견문을 토대로 저술한 것으로, 여행 체험의 내용이 일부 서술되어 있다. 장인성, 『서유견문-한국 보수주의의 기원에 관한 성찰』, 아카넷, 2017, 14쪽. 이외에도 영국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의 축하사절단으로 영국으로 비롯한 여러 나라를 둘러보고 온 감상과 체험을 노래한 이종응의 해외기행가사 『서유견문록』[1902]과, 6년 동안의 미국 체험을 가사로 작성한 김한홍의 『海遊歌』[1902] 등도 20세기 초 세계여행에 대한 글쓰기로 함께 언급할 수 있다. 김상진, 『李鍾應의 <서유견문록>에 나타난 서구 체험과 문화적 충격』, 『우리문학연구』 23집, 우리문화회, 2008; 김윤희, 『미국 기행가사 <해유가>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과 시대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39집, 한국고전문학회, 2011.

8) 김동성의 책은 한국인이 미국에서 출판한 최초의 단행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의 내용 일부가 1918년에 『매일신보』에 본인이 직접 번역하여 연재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김동성은 『미국인상기』(국제문화협회, 1948)을 출간하여 미국에 대한 대중들의 인상과 관념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1954년에는 『중남미 기행』(원문각) 등을 비롯한 해외 사정을 보고하는 여러 글들을 남겼다. 김동성, 『見聞記-世界旅行에서』, 『동아일보』, 1960.07.06-10.12.

여행기는 서구와 비서구, 문명과 야만, 제국과 식민지 등으로 나뉜 세계 질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서구문명에 욕망과 동경을 생산하는 대중적인 교양서로 읽혔다.

탈식민기 세계여행기의 범람은 그 전과 후 세계여행기의 문화적 유행 현상과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 종전과 함께 제국주의가 종식되고 식민 지배를 받았던 제3세계 지역들이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면서, 세계는 비로소 정치적으로 평등한 국가들이 교류하는 ‘평평한 세계’가 되었다. 물론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냉전의 진영 논리로 분열되어 ‘하나의 세계’<sup>10)</sup>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세계’가 곧 ‘서구’와 동일시되었던 서구중심주의에 경도된 지정학적 세계 인식은 상당 부분 희석되었다. 요컨대 과거 ‘교양으로서의 세계’가 서구 문명에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지구 전역으로 확대되어 ‘세계=지구’라는 인식이 정치적 실감의 차원에서 수용될 수 있었다. 탈식민성은 달리 말하면 ‘세계’(와 더불어 ‘국가’)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 지평이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는 과정이었다.

탈식민기 정치적 독립의 열기와 자유의 고취는 세계를 제약 없이 왕래할 수 있는 여행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다. 실제 경제적·정치적·법적 규제로 말미암아 여전히 해외여행이 가능한 개인은 소수에 불과했지만,<sup>11)</sup> 국가의 대표자격으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방면에서 국제교류에

9) 이외에도 식민지 시대 단편적인 세계여행기들에 대해서는 허현, 최승희 외, 성현경 엮음, 『경성 에리쓰의 만국유람기』, 현실문화, 2015 참조.

10) 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 『상허학보』 34집, 상허학회, 2012, 273쪽.

11) 1960년대부터 해외여행에 대한 각종 제한과 통제 방안들이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1961년부터 공무 수행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공무해외여행심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내각수반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1968년부터는 경제개발과 무관한 해외여행과 시찰이 억제되었다. 탈식민기 세계여행기들에는 해외여행을 출발하기까지 정부의 승인을 받는 수개월 간의 고충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빠짐없이 나온다. 1974년에 세계여행을 떠난 최인호도 복잡한 출국수속의 어려움을 털어놓는다. “우선 사진을 찍어야 한다. 여권사진을 찍으면 외

참가하는 공적 개인의 세계여행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들 공적 개인이 남긴 세계여행기는 ‘자유화된 세계’의 모습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계몽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여행기와 닮았지만, 그 ‘교양으로서의 세계’가 서구에 한정된 것이 아닌 비서구 지역을 포함한 지구 전체라는 점에서는 달랐다. 탈식민기 세계여행기는 미국과 유럽, 일본만이 아니라 동남아, 인도, 남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대륙,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물론 알래스카, 아마존, 남태평양의 섬들 등 세계의 오지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모든 지역을 망라하고 있다. 탈식민기 세계여행기의 가장 대표적인 기행이 ‘세계일주’(a journey around the world)인 까닭도 지구의 모든 장소를 답사하겠다는 남다른 교양의 욕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탈식민기 세계여행기는 지구적 세계의 다양한 풍물과 문화 등에 대한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교육한다는 계몽적 의도를 벗어나 단지 세계를 여행하는 자유와 즐거움을 향유하는 순수 기행문으로서 개인적이고 예술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대체로 1970년대 문인들이 남긴 세계여행기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은 사적 개인의 자유분방한 감성의 표출에 주력하며 ‘세계’를 주관적 자아의 확장으로 재현하거나 미학의 영역으로 치환한다. 이러한 경향은 ‘교양으로서의 세계’가 내포하는 반공주

---

무부 창구에서 신원조회 용지 너 장을 얻어서 나이, 주소, 학력, 경력을 써야만 한다. 사진 옆에는 보증인의 계인을 찍어야 하고 접수시킨 후에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다. 동백아가씨처럼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어느 날 아침 불쑥 가죽잠바 입은 형사나오리의 방문을 받게 된다. 몇가지의 심문이 끝나면 또 기다린다. 신원조회가 끝나고 나면 보증인 두 명의 인감증명서, 계인, 한국일보 추천장, 재정보증서, 문공부 추천장, 문인협회 추천장, 호적등본 2통, 예비군편성확인서를 예비군중대에서 발급받아서 병무청에 가지고 가면 출국허가서, 이 한 보따리를 접수시키고 나면 또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뿐인가. 검역소에 가서 주사맞아야 하고…….”(최인호, 『맨발의 世界1周』, 예문관, 1975, 29-30쪽) 이러한 까다롭고 복잡한 출국수속은 곧 ‘국민’의 자격과 조건을 심사하는 장치이며, 출국심사를 통해 ‘국민’의 경계와 범주가 엄격하게 재확인되었다.

의와 국가주의 등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는 탈정치적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요컨대 1960-70년대 세계여행기에 표상된 ‘지구=세계’는 ‘교양으로서의 세계’와 ‘예술로서의 세계’가 혼재되어 있었고, 두 세계 사이에서 세계여행기는 다양한 양식으로 분화되었다.

이 글은 탈식민기에 생산된 단행본 세계여행기를 개관하여, 전반적인 전개 양상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탈식민기 세계여행기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주목 받은 분야이지만, 비교적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sup>12)</sup>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 세계여행기는 냉전기 남한 지식인

12) 공임순, 『물신화와 여행서사의 국가화-조병옥의 『특사유엔기행』의 역사지정학』, 『시학과 언어학』 제19집, 시학과 언어학회, 2010; 김미영, 『1960-70년대 이여령 에세이에 묘사된 유럽·이란 심상지리』, 『인문논총』 제32권, 경남대학교 인문과 학연구소, 2013; 『1960-70년대에 간행된 한국 지식인들의 기행산문』, 『외국문학 연구』 제50호, 한국의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3; 김복순, 『『사상계』 기행문에 나타난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재편양상과 재건의 젠더』, 『여성문학연구』 39집, 2016; 김양선, 『1950년대 세계여행기와 소설에 나타난 로컬의 심상지리: 전후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 김예림, 『냉전기 아시아 상상과 반공 정체성의 위상학: 해방~한국전쟁(1945~1955) 아시아 심상지리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20집, 상허학회, 2007; 박연희, 『1970년대 서정주의 세계여행론』, 『상허학보』 43집, 상허학회, 2015; 『박인환의 미국 서부 기행과 아메리카니즘』, 『한국어문학연구』 제59집, 동악어문학회, 2012; 박옥순, 『1970년대 서정주의 세계여행과 시적 도정』, 『한국문예창작』 제16권 제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7; 박태상, 『새로 발견된 이기영의 『기행문집』 제연구: 공산주의적 유토피아로서의 “소련”』,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2호, 북한연구학회, 2001; 배개화, 『탈식민지 문학자의 소련기행과 새 국가 건설』, 『한국현대문학연구』 46집, 한국현대문학회, 2015; 송영순, 『모운숙의 세계기행문 『내가 본 세상』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7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5; 심혜경, 『안철영의 『성립기행』에서의 할리우드 그리고 조선영화』, 『동악어문학』 62집, 동악어문학회, 2014; 연윤희, 『1960년대 ‘고바우영감’과 월경(越境)하는 비주얼텍스트』, 『대중서사연구』 제21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5; 옥창준, 『냉전기 한국 지식인의 아시아 아프리카 상상』, 『한국문화연구』 28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5; 우정덕, 『김찬삼의 『세계일주무전여행기(世界一周無錢旅行記)』 재고찰: 1960년대 독서 대중의 세계 인식과 연결하여』, 『한민족어문학』 제56권, 한민족어문학회, 2010; 이상록, 『탈식민 지식인의 구미歐美 여행 경험과 자아 인식, 그리고 민족주체성의 재구축: 1960~70년대 함석헌의



이 제3세계 국가들과의 연대를 상상하고 구축하는 방식에 관한 논의의 주요 제제로 다루어지거나 개별 작가/시인론의 하위주제로 논의된다. 다수의 세계여행기들을 묶은 논의는 몇몇 여성작가들의 텍스트를 함께 다룬 연구에 한정된다. 상당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탈식민기 세계여행기는 독자적인 연구 범주로 논의되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탈식민기 세계여행기의 전반적인 양상을 종합적으로 개관하려는 시도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들을 정리하고 전체적인 개요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1945-1960년 세계여행기의 양상: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세계여행에는 긴 시간적 여유와 큰 경제적 비용이 소모된다. 특히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뒤떨어진 과거로 갈수록 세계여행에 필요한 비용은

---

미국·유럽 여행기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제22호, 문학사학회, 2011; 이형선, 『해방공간, 소련·북조선기행과 반공주의』,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6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임유경, 『“오빠꾼”과 ‘조선사절단’, 그리고 모스크바의 추억: 해방기 소련기행의 문화정치학』, 『상허학보』 제27집, 상허학회, 2009; 임정연, 『1950-80년대 여성 여행서사에 나타난 이국 체험과 장소 감수성』, 『국제어문』 제61집, 국제어문학회, 2014; 『여성의 이국 체험과 감성의 지리학: 1950-70년대 해외기행문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33집, 이화어문학회, 2014; 『인도 여행기의 지리적 상상력과 로컬 재현의 계보』, 『국제어문』 제74집, 국제어문학회, 2017; 임종명, 『탈(脫)식민 초기(1945.8~1950.5), 남한국가 엘리트의 아시아기행기(紀行記)와 아시아표상(表象)』, 『민족문화연구』 제52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0;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 미국기행문의 미국 표상과 대한민족(大韓民族)의 구성』, 『사총』 제67권,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08; 임지연, 『조병화의 세계 기행시에 나타난 코스모폴리탄적 주체의 정위 방식: 1950~60년대 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제38호, 한국시학회, 2013; 장세진, 『상상된 아메리카와 1950년대 한국 문학의 자기 표상』,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역내 교통의 (불)가능성 혹은 냉전기 아시아 지역 기행』, 『상허학보』 제31집, 상허학회, 2011; 『슬픈 아시아』, 푸른역사, 2012

천문학적 수준에 이른다.<sup>13)</sup> 때문에 세계여행은 대부분 막대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국가나 귀족, 종교단체 등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과거에 세계여행기를 남긴 사람들은 국가가 파견한 공식사절단 등의 일원인 경우가 다수였다.<sup>14)</sup>

해방 후 세계여행의 물적 토대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국가의 존재다. 미군정기에 국외로의 모든 이동은 정부의 지원 및 관리와 통제 아래 이루어졌다. 단독정부 수립 이후에는 여권과 비자 발급 등의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엄격해졌다. 해방 후 세계여행은 정치인과 파워엘리트들이 국가 차원의 공식 방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언론인과 학자, 문인과 예술인, 기업인과 종교인 등의 여행도 대개 공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모든 세계여행이 국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또 통제되면서, 오직 개인의 사적 동기와 능력으로 완수한 기념비적 사례인 김찬삼의 ‘세계일주기’가 등장하기까지 1945-50년대 세계여행기는 국가의 외교 업무와 대외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에 관한 기록으로서 시찰기에 가까웠다. 때문에 여행자는 그 신분과 계층이 매우 한정되어 있고, 특히 세계여행의 방문 지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1945년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단행본 세계여행기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3) 김동성은 약 3~4개월 동안 세계일주를 하기 위해선 1인당 최소 4,000~5,000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김동성, 『見聞記-世界旅行에서』, 『동아일보』, 1960.07.06.) 비교하자면, 1961년 기준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70달러였다. 1963년에 서독으로 파견되었던 광부의 보수는 월 160달러로, 이 금액은 당시 일반사무직 월급의 10배였다.(『月50달러以上貯蓄 -西獨가는鑛夫5百名』, 『경향신문』 1963.08.30.) 평범한 사람들에게 해외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14) 식민지 시대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공인의 세계여행은 없었다. 유학생이나 지식인은 학교나 종교 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민간 루트를 통해 세계를 둘러보았다.

장기영	太平洋空路 :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들은 美國·美國國民·美國經濟	한국일보사	1946
현 근	인도인상기	신천지	1947년 5월호
황재경	旅行途中記	경향신문	1947.09.14.
하경덕	인도에 다녀와서	신천지	1947년 7월호
김길준	전후 일본기행	신천지	1947년 11월/ 12월 합본호
황성수	인도태평양수산회의기행	외무월보 2호	1948년 2월호
최이권	杭州 旅行記-세계여자기독교대회참가 보고	국제문화관	1948
김동성	美國印象記	국제문화협회	1948
고황경	印度紀行	을유문화사	1949
민재호	런던 올림픽 紀行	수로사	1949
설국환	日本紀行	수도문화사	1949
안동원	世界一週記 : 鵬程十万里	태극서관	1949
안동원	歐洲理想國家群(世界一週記 續篇)	태극서관	1949
조병옥	特使 유엔 紀行	덕흥서림	1949
김병도	新聞記者가 본 中國	유길서점	1949
안철영	聖林紀行	수도문화사	1949
丁來東	(隨筆集)北京時代	平文社	1949
최창순	내가 본 海外 이모저모-歐美空路篇 (전3회)	동아일보	1949.11.07-09.
이장원	동남아기행(1~4)	자유신문	1950.3.8.~11
한승인	동남아세아기행	동아일보	1950.05.20

이 시기 국외로 떠난 이들은 일본과 미국에서 수학한 유학과 출신 국  
가관료들이거나 언론·출판인들이다. 예컨대 황성수(1917-1997)는 일본

도호쿠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동경 제국대학 대학원과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빼콜터 침례교 신학교 등에서 수학한 엘리트다. 『인도태평양수산회의기행』은 1948년 1월에 개최된 인도태평양수산회의에 대한민국 외무부 초대 정보국장으로 참석한 기록이다. 하경덕은 1925 하버드 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로, 해방 후 『서울신문』의 창간에 핵심 역할을 맡고 종합지 『신천지』 사장을 역임했다. 그의 여행기는 1947년 3월 백낙준, 고헥경과 함께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뉴델리 범아세아회의에 참석한 뒤, 인도사회에 대한 감상과 비평을 남긴 것이다. 미군정 보건후생부 부녀국장이었던 고헥경의 『인도기행』도 동일한 목적으로 인도를 방문한 기행문이다. 또 다른 여성인물인 최이권은 백낙준의 부인으로 서울YWCA의 회장이라는 사회적 명망을 갖춘 인사였다. 김길준은 드물게 개인 휴가로 일본을 다녀온 경우인데, 이것은 공보처 고문의 신분이기에 가능했다.

두 권의 세계여행기를 출간한 안동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력이 알려져 있지 않다. 해방 후 ‘상호무역’이라는 사업체의 사장으로 일하면서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는 사회운동가 내지 정치가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5)</sup> 안동원은 1948년에 YMCA의 후원으로 미국 및 유럽 여행길에 오르는데, 다른 선진국을 견학하고 배운 지식으로 국가 건설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sup>16)</sup> 그 내용은 방문한 국가의 산업 현황과 정치 조직을 설명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설국환의 『일본기행』 역시 기사 자료를 등을 인용하며, 일본 정부의 내각 구성과 같은 표를 인용하고 있다.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계를 방문한 안철영<sup>17)</sup>의 『聖林紀行』도 미국 영화의 현황

15) 『朝鮮商工業大會盛況』, 『동아일보』, 1945.10.24; 『缺員代議員補充 安東源氏를 任命』, 『경향신문』 1947.05.11.

16) “永世토록 다시는 이 거리거리에 外族의 侵犯이 없도록, 내 나라를 우리 손으로 建設하고 發展시킬 方法을 배울 目的”, 안동원, 『世界一週記』, 태극서관, 1949, 8쪽.

17) 영화평정가로 알려진 안철영은 1931년 베를린공과대학에서 사진화학과를 다녔고, 라이만발성영화연구소에서 영화연구를 했다고 알려져 있다. 식민지 시대 때

이나 관련 법률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안점이 놓여 있다.<sup>18)</sup> 세계여행의 방문 국가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당시 아시아 지역에 고조되어 있던 정치적 연대의 열기 때문이다.<sup>19)</sup> 종전 이후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피식민 지배의 역사 경험을 공통분모 삼아 빠른 속도로 ‘아시아’라는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잔존하는 서구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신생독립국들 간 정치적 연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연대의 가능성이 구체화 되었다. 1947년부터 시작된 ‘범아세아회의’와 1955년 ‘반동회의’ 등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다. 비록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이라는 불가피한 국내 상황, 냉전 구도에서 지나치게 미국에 근접한 외교 정책 등으로 아시아 국

---

『동아일보』 등에 독일영화계를 소개하는 기사를 기고하기도 했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청 예술과장을 맡았고, 과도정부 때는 문교부 예술과장을 역임한다. 1947년 9월 한국최초의 예술사전로 미국영화계를 시찰한다. 강옥희 외, 『식민지 시대 대중예술인 사전』, 소도, 2006, 203~4쪽.

- 18) 『성림기행』은 크게 5부분으로 나뉘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분은 일본의 영화계와 맥아더 사령부의 영화정책을 기록하고 다섯 번째 부분은 미국의 각종 영화단체 및 관련 통계 등을 싣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아카데미 영화제 참석 등 미국 영화계를 방문한 내용이고, 첫 번째 부분은 하와이에 도착해 영화 <무궁화동산>을 촬영하는 지난 4개월 간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1948년에 개봉된 <무궁화동산>은 『성림기행』의 첫 부분을 영화화한 것이다. 심혜경, 『안철영의 『성림기행』에서의 할리우드 그리고 조선영화』, 『동악어문학』 62집, 동악어문학회, 2014, 173-174쪽. <무궁화동산>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기행영화다.
- 19) 일본에 대한 관심은 특별하다. 설국환과 김길준, 그리고 이채구의 『일본견문기: 그들은 왜 잘 사는가』(제일문화사, 1973)를 제외하면, 일본을 목적지로 삼은 여행기는 거의 없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세계여행기에는 일본에 대한 서술이 많은 적든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왜냐하면 당시 상해나 홍콩 등을 제외하곤 다른 나라로 향하는 직항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기착지로서 일본이나 홍콩을 거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을 거쳐 갈 때 여행자들은 일본에 대한 증오와 질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토로하곤 한다. 세계여행의 첫 기착지로 일본이 놓여 있는 구조는 새롭게 펼쳐진 세계에 진입할 때 늘 식민지배의 어두운 그림자를 상기하도록 만든다. 한편 또 다른 중간기착지로서 아시아 국가이면서 서구에 속해 있는 홍콩의 심상지리적 의미에 대해서는 장세진, 『슬픈 아시아』, 푸른역사, 2012, 133-146쪽 참조.

가들의 연대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의 연대에 대한 높은 관심은 지속적이었다. 이 시기 세계여행기는 아시아 지역의 연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한편, 친숙하지만 정치적·인종적·종교적으로 다양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낯선 '아시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 세계여행기는 지역과 저자층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인다. 국가가 파견하는 정치인, 관료, 파워엘리트 등에게만 허용되었던 세계여행은 이제 학술, 예술, 종교 등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를 통해 저변이 확대된다. 반면 여행의 주된 방문 국가와 관심 지역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옮겨갔다.

박종화	(史詩) 영광의 거리	신천지	1950년 3월호
유기태	국제자유노련대회참가와 세계일주 기행	신천지	1950년 4월호
吳制道 외	赤禍三朔九人集	國際報道聯盟	1951
김말봉	하와이의 야화	신천지 제전시판	1952년 3월호
장기영	동남아시아 기행	자유세계	1952년 4월호
김말봉	베니스 기행	신천지	1953년 5월호
김재위	第十五回올림픽紀行文	충청남도체육회	1953
모운숙	내가 본 세상	수도문화사	1953
朱商漸	올림픽 紀行 : 參加選手의 手記	新有社	1953
한희석	雲上十萬里: 世界一周紀行	대한지방행정협회	1953
김재위	第十五回올림픽紀行文	충청남도체육회	1953
김동성	우호국 예방기 上/下	신천지	1953년 11월호 / 12월호
김동성	중남미 기행	원문각	1954
申翼熙	旅行記	早大同窓會	1954
김말봉	아메리카 3개월 전문기	한국일보	1955. 12. 8~ 12. 13
박인환	19일간의 아메리카	조선일보	1955.5.13, 17

20) 국내기행문도 포함되어 있다. 해외기행문으로는 모운숙의 「부랴셀로 가는 길」,

박인환	미국에 사는 한국이민-그들의 생활과 의견	아리랑	1955년 12월호
박인환	아메리카 잡기-서북미주의 항구를 돌아	월간 희망	1955년 7월호
임영빈	英國紀行	형제출판사	1955
조의설	世界見聞	장왕사	1955
정성광	동남아의 식민 지역	신태양	1956년 5월호
조동재	홍콩의 인상	새벽	1956년 9월호
전숙희	이국의 정서: 전숙희 미국여행기	희망출판사	1956
김준석	歐美滯留記	바경사	1956
장기영	太平洋空路: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들은 美國·美國民·美國經濟	한국일보사	1956
김정준	咸台永翁 世界一周記	서울신문사	1957
김보현	미국인상기	교학사	1957
민관식	訪美紀行: 왜? 그들은 잘사나	高麗時報社	1957
이병주	巴里紀行	哲也堂	1957
金桂淑	歐美教育和 哲學의 動向: 歐美視察을 中心으로	豊國學園出版部	1957
	기행문 특집 <sup>20)</sup>	자유문학	1958년 8월호
김말봉	남의 나라에서 부러웠던 몇가지 사실들	예술원보	1958년 12월호
조병화	석아화-대만기행 시화집	정음사	1958
宋志英 외	(臺灣紀行)自由中國의 今日	春潮社	1958
유철	내가 본 미국	대동당	1958
임한영	(구라과의)萬物相	흑백문화사	1958
조병화	석아화: 대만기행 시화집	정음사	1958
崔建	(紀行)旅窓有感	昌新文化社	1958
崔玉子	어머니의 편지: 歐羅巴 紀行中	首都女子師範大學出版部	1958
신문학회	해외견문기 <sup>21)</sup>	新聞學會	1959
김형두	내가 본 世界: 歐美篇	國際新報社出版部	1959
方泳斗	歐羅巴 柔道紀行	大韓柔道會	1959
韓哲宇 編	나의 留學記 1-2	章旺社	1959
조풍연외음	世界의 印象-三十人의 紀行文	진문사	1959

유달영	유토피아의 원시림-세계여행수상록	사상계사	1960
조영식	인간과 창조-나의 세계일주기	경희대학교출판국	1960
이기영	기행문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김경래	社會部記者 美國루포	사상문고사	1960
韓哲宇 編	나의 旅行記 : 그림으로 보는 世界 1-3	章旺社	1960
國際旅行社 編	最近의 東京 : 三週間の 日本旅行	新潮出版社	1961
鄭泰時	(趙東植 博士 世界一周記) 좁아지는 世界	동덕여자대학 출판부	1961

우선 저자층을 보면, 학자와 문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조의설은 1957년 한국서양사학회를 창설하고 『서양사론』을 창간한 한국서양사학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世界見聞』은 미네소타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체류하다 대서양을 건너 유럽을 여행한 뒤 동남아와 일본을 거쳐 귀국하는 과정을 적은 기행문이다. 미국에서 출발하여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이집트, 요르단, 인도, 태국, 홍콩, 일본 등을 방문했다.<sup>22)</sup> 유달영은 농학자이면서, 시인이자 수필가였다. 1960년에 유진오의 후임으로 재건국민운동본부장을 맡는 등 사회운동가로도 활동했다. 『유토피아의 원시림』은 1956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20여 개의 나라를 여행한 기행문이다. 조의설과 유사하게 교환교수의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스위스-이탈리아-그리스

김정진의 『伯林紀行』, 전숙희의 『香港紀行』, 정비석의 『日本과 나』, 고원의 『셰익스피어의 故郷』, 조병화의 『玄海灘』, 우승규의 『上海와 나』, 이현구의 『無性格의 都市 東京 瞥感』이 수록되어 있다.

21)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건설 등 총 6부로 나뉘어 총 41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해외견문기'란 표제를 달고 있지만, 수록된 모든 글들이 모두 여행기는 아니다. 애국주의와 반공주의의 시각에서 외국의 사정을 소개하는 수준의 글모음집이다.

22) 서양사학자로서의 서구 문명과 역사, 문물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서술하지만, 여행의 즐거움과 고단함, 특별한 사건 등 여행기만의 내용은 축소되어 있다.



-터키-파키스탄-인도-대만-홍콩-오키나와-일본을 거쳐 귀국했다. 조영식은 경희대학교를 창립하고 총장을 역임한 교육자이자 학자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대학 총장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세계를 일주했다. 선진국가의 정치와 문물제도, 교육제도를 시찰하고 배워 한국의 정치와 교육발전에 도움을 받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라고 밝히며, 일본-미국-포르투갈-스페인-프랑스-영국-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독일-벨기에-스위스-이탈리아-그리스-터키-레바논-요르단-예루살렘-베트남-홍콩-필리핀-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왔다. 동덕여자대학의 설립자인 조동식 역시 대한교육연합회의 대표자격으로 세계교육자총연합회(WCOTP) 제8차 대의원회에 참석하고자 74세의 고령에도 세계여행을 나섰다. 『좁아지는 세계』는 조동식과 함께 동행한 정태시 사무국장이 저술한 것으로, 앞서 여행들의 경로와 반대로 홍콩과 태국을 거쳐 유럽의 나라들을 둘러보고 목적지인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다. 방문한 유럽국가는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5개국이다. 임영빈은 종교인이면서 1925년 『조선문단』에 단편 「난륜(亂倫)」을 발표한 소설가이기도 하다. 대한성서공회의 초대총무를 지낸 당시 영국성서공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영국을 방문하였다. 『영국기행』은 영국 단일국가만 다녀온 여행기로, 영국의 교회들을 둘러보고 목사들과 교류하는 등 종교적인 내용과 목회활동에 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sup>23)</sup> 가장 특기할 만한 여행자는 『파리기행』의 저자 이병주다. 한국노동의 간부로 일한 적이 있는 그는 1954년 5월에 ‘프랑스노동총연맹’의 초청을 받아 1년 뒤 프랑스의 노동연맹과 노동문화 등을 시찰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다. 프랑스의 초청은 이병주가 미국 등 선진국에 방문신청을 문의한 것에 응답한 것

23) 김정준의 『함태영웅 세계일주기』 역시 종교적 여행기다. 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함태영은 목사로서 ‘가나나 연합교회총회에 참석하고 또한 미루어졌던 성지 순례를 다녀오기 위해 세계여행에 나선다. 주 내용은 기독교 교회의 사적과 세계교회의 동향이다.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 12개국을 방문했다.

이다. 1955년 4월 홍콩을 출발하여 싱가포르-인도-파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이탈리아 등을 거쳐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여 약 3개월 간 체류하고 베트남-필리핀-일본을 지나 8월 말에 귀국했다. 『파리기행』은 프랑스의 노동조합과 노동법, 노동운동과 노동문화 등을 시찰하는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른 여행기와 비교할 때 서구 문명과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눈에 띈다.

한편 정치가, 파워엘리트, 언론인 등이 남긴 1950년대 세계여행기는 모두 미국여행기다. 미군정기부터 1950년대까지 미국은 미국 여행을 독려하고 지원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미국 여행기가 양산되었다. 미국은 친미정권인 남한 단독정부의 권력 정당화를 위해 ‘미국식 민주주의’와 대중문화를 전파하고자 했고 그 중요한 매체가 지식인들의 여행기였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이 시기 정치인, 파워엘리트 등의 여행기가 모두 미국을 방문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정과 연관되어 있다.

모운숙의 『내가 본 세상』은 YWCA국제회의와 제3차 유엔총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그 과정을 기록한 참관기이다.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관한 국제회의의 일정과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정치가나 파워엘리트의 시찰기와 달리 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유엔 참관이 주된 내용이지만, 프랑스 등 유럽과 미국에서 받은 인상을 서술하는 대목은 계몽적 의도나 사대주의적 태도가 깔린 지식인이나 정치인의 인상기와는 확연히 다르다. 예컨대 모운숙은 미국에 당도해서 미국 문명의 화려함에 압도당하면서도 이내 미국 문화의 물질주의를 비판하는 시각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문명에 대한 거리두기의 태도를 뒷받침하는 것은 조선적인 것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민족주의적 태도다.<sup>25)</sup>

24) 심혜경, 앞의 글, 172-174쪽.

25) 모운숙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들, 특히 유학 중 여성들을 만나 그들이 조선옷을 입고 공부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낸다. 모운숙, 『내가 본 세상』, 수도문화사, 1953, 151-158쪽.

전숙희의 『이국의 정서』는 1955년에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일간지 콜크로 니컬 신문사의 초청을 받고 아시아재단의 후원으로 미국 문화계 시찰을 다녀온 기록이다.<sup>26)</sup> 시찰의 목적으로 떠났다고 했지만, 전숙희는 주로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으로 강연을 하러 다녔고, 아시아재단의 후원으로 콜럼비아대학 비교문화과에 1년 동안 수학하게 된다.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의 문화, 미국 사회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교육제도나 정치, 경제 등에 관한 생각을 담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 문화에 대한 판단과 평가 보다는 보편적인 인간의 삶과 정서에 감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 3. 1960-70년대 세계여행기의 양상: 김찬삼의 ‘세계일주무전여행기’와 세계여행기의 탈정치화

김찬삼의 ‘세계일주기’는 세계여행기의 분야에서 정전으로서의 지위<sup>27)</sup>를 누리는 텍스트로, 그의 등장은 탈식민기 세계여행기의 역사를 그 전과 후로 나누는 분기점이다. 1962년 『세계일주무전여행기』의 출간 이후 『끝없는 여로-속 세계일주무전여행기』(1965), 『세계의 나그네』(1972)가 연이어 나오고, 1975년에 전 10권의 컬러호화양장본으로 완결된 『김찬삼의 세계여행』은 탈식민기 세계여행의 유행을 낳았던 ‘지구=세계’, 즉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한 계몽적 욕망과 전 세계를 직접 누비는 자유로운 모험의 욕망이 ‘세계일주’라는 형식에 집약되고 집대성된 작품이다.

『세계일주무전여행기』는 출간 이후 5일마다 판을 거듭했고<sup>28)</sup> 『김찬

26) 아마도 전숙희는 가장 많이 세계여행을 다니고, 또한 가장 많은 여행기를 남긴 문인일 것이다. 문예지나 신문 등 최초 발표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기행문은 『전숙희 문학 전집』(동서문화사, 1999, 전 7권)에 나뉘져 수록되어 있다. 여행기의 분량만 3권을 웃돈다.

27) 이어령, 『김찬삼 교수를 추모하며』, 김찬삼추모사업회 편, 『세계의 나그네 김찬삼』, 이지출판, 2009, 27쪽.

삼의 세계여행』은 백과사전이나 세계문학전집처럼 집집마다 구비해놓고 읽어야 하는 필독교양서로 여겨졌다.<sup>29)</sup> 김찬삼의 세계여행기가 대중적 관심과 인기를 끈 것은 ‘세계일주’와 ‘무전여행’ 그리고 (교양서로서의) ‘여행기’라는 형식과 관련이 있다.

김찬삼은 1958년부터 1996년까지 총 20차례 세계여행을 떠났다. 방문한 국가는 160개국, 지구를 32바퀴나 도는 거리다. 『세계일주무전여행기』의 바탕이 된 제1차 세계여행은 1958년 9월부터 1961년 7월까지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59개 나라를 방문했다. 김찬삼의 세계여행은 세계 여러 나라를 두루두루 여행한 세계일주였다. 일반적으로 세계일주란 지구를 한바퀴 도는 여행을 일컫는다. 최초의 세계일주인 마젤란 원정대의 탐험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한국인 최초의 세계일주인 민영환의 여행도 동쪽으로 출발해 태평양과 북미대륙, 대서양과 유럽, 러시아 영토를 통과해 서쪽으로 돌아오는 일주의 경로였다.<sup>30)</sup> 역사를 돌아보면, 세계일주라는 여행 방식은 한국인들에게는 늘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다. 1901년 7월 2일자 『皇城新聞』에 서구인들의 세계일주에 관한 최초의 기사<sup>31)</sup>가 게재된 이후 세계일주에 관한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알려지며 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받았다. 탈식민기에도 외국인들의 세계일주에 관한 보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보도되었다. 세계일주는 서구인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였다. 김찬삼 이전 탈식민기 세계여행기 중엔 ‘세계일주기’라고 붙여진 기행문이 더러 있었지만, 그것들은 세계일주를 향한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세계일주를 한다는 것은 현대세계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상징적

28) 이어령, 앞의 글, 26쪽.

29) 남궁진은 『세계의 나그네』가 안병욱의 『인생은 예술처럼』, 이어령의 『흙속에 저 바람속에』와 함께 70년대 청년 세대에게 필독서로 읽혔다고 회고한다. 남궁진, 『선각자적인 ‘세계정신’을 기리며』, 김찬삼추모사업회 편, 앞의 책, 28쪽.

30) 김찬삼이 제1차 세계여행을 떠난 무렵 민영환의 『해천추범』도 처음 한글로 번역되었다. 민영환, 『해천추범』, 을유문화사, 1959.

31) 『德國의 世界一周線路計畫』, 『皇城新聞』, 1901년 7월 2일.

시민권을 획득하는 절차였다. 세계일주에 투영된 대중의 욕망은 세계 곳곳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에 대한 동경이었다. 때문에 다른 나라의 초청을 받거나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지구를 한바퀴 도는 세계여행은 형식만 갖춘 세계일주에 지나지 않았다.

김찬삼의 세계일주는 ‘무전여행’이었다. 대학에서 지리학을 전공하고 고등학교 지리교사로 일하던 김찬삼은 자신이 모은 돈으로 유학비를 마련해 195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여 지리학을 연구한다. 1년 뒤 그는 세계여행을 출발하는데, 그때 여행 경비는 유학 생활 동안 비행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충당한 것이다.<sup>32)</sup> 그러나 그 경비는 최소한의 자금이었고, 실제 김찬삼은 많은 경우 중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길에서 노숙하거나 중고 폴크스바겐 자동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가난하고 고된 ‘무전여행’을 했다. 김찬삼은 최초의 세계여행 전문가이자 배낭여행 1세대였다. 그는 철저하게 여행계획과 목표를 정하고, 유서를 쓰고 여행을 떠났고, 엄격한 여행의 원칙을 따랐다. ‘무전여행’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행의 계획과 방법, 굳건한 의지와 강인한 체력 등이 필요했다.

김찬삼에게 세계여행은 어린 시절의 꿈이었다. 지리학을 연구하기 위한 계기도 있지만, 세계여행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일이었다. 다시 말해 김찬삼의 세계여행은 세계의 무대에서 펼쳐진 자아실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찬삼에 이르러, 한국인의 세계여행은 자신의 힘으로 실현하는 자기완성의 의미와 연결되었다. 세계여행은 더 이상 국가나 공적 단체의 초청과 지원, 국가 간 외교적 교섭이나 문화적 교류를 수행하는 공적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동기와 노력으로 성취하는 사적 영역으로 이해되는 것이 가능했다. 비로소 ‘세계’는 자아실현의 공간이 된 것이다.

김찬삼은 여행전문가이기도 했지만 지리학자이기도 했다. 그는 여행

32) 김찬삼, 『머리말』, 『세계일주무전여행기』, 어문각, 1961, 2쪽.

중에 늘 지리학자로서 지형, 농산물, 돌, 토양에 대한 관찰을 기록하고 정리했다. 그의 세계여행기에는 세계 각국의 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설명이 원색의 사진과 함께 담겨 있었다. 지리학자로서의 지식과 관점은 정치, 종교, 역사 등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던 기존 여행기와 달리 자연과 기후, 풍물과 문화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객관적인 이해를 제공했다.

또한 김찬삼의 세계여행기는 미국과 유럽의 서술 비중이 적다는 점에서 표면상 서구중심주의적 시각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sup>33)</sup> 첫 여행기인 『세계일주무전여행기』는 알래스카에서 시작하며, 중남미와 아프리카, 중동에 관한 내용이 미국과 유럽에 관한 서술보다 양적인 면에서 압도한다. 두 번째 여행기인 『끝없는 여로』는 사실상 아프리카 여행기이며, 『세계의 나그네』는 동남아, 멜라네시아, 오세아니아, 폴리네시아, 카리비아제도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기존의 여행기들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대만과 홍콩 등은 목적지인 미국과 유럽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로 언급되며 사실상 여행의 장소로 이야기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와 비교할 때 김찬삼의 여행기는 유럽과 미국, 일본과 홍콩 등 당대 독자들

33) 우정덕은 『세계일주무전여행기』가 미국을 중심으로 기술된 여행기라고 단언한다. 미국이 “분량과 내용의 밀도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하는데, 전체 360쪽 가운데 미국에 대한 서술은 52-101쪽으로 불과 50쪽에 불과하다. 또한 후속작들인 『끝없는 여로』와 『세계의 나그네』에선 미국을 아예 방문하지도 않는다. 김찬삼은 의도적으로 미국에 대한 서술을 축소하거나 생략한다. 때문에 김찬삼이 세계를 바라보는 지리적 인식이 미국으로 중심으로 위계화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김찬삼이 제3세계의 나라를 방문할 때 오리엔탈리즘적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 없지 않지만, 지금도 과거에도 오리엔탈리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여행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행기에 나타난 타자 인식이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편견에 물들어 있다는 것은 손쉬운 분석이다. 다만 그러한 이데올로기와 편견이 자기 정체성의 구성에 어떻게 작용하며 왜 필수적인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정덕, 『김찬삼의 『세계일주무전여행기』(世界一周無錢旅行記)』 고찰: 1960년대 독서 대중의 세계 인식과 연결하여, 『한민족어문학』 제56권, 한민족어문학회, 2010, 434-450쪽 참조.

에게 잘 알려진 지역보다는 세계의 오지를 탐험하고 소개하며 서구중심주의와 냉전 질서에 갇힌 세계 인식의 지평을 폭넓게 확대했다. 그것은 정치와 역사 위주의 지식과 유럽과 미국에 편중된 기존 여행기와 차별화된 김찬삼 여행기의 특징이자 세계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 생생한 여행의 현장감을 원하던 당대 독자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공적인 목적이나 국가의 부국강병 등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적 자아실현을 위한 여행이라는 점과 연관된다.

김찬삼 이후 1960-70년대 세계여행기는 뚜렷하게 탈정치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고황경	구라과기행	인문사	1962
김찬삼	세계일주무전여행기	어문각	1962
조의설	아프리카를 가다	文豪社	1962
방영두	歐羅巴柔道紀行	문창사	1962
심홍택 외	親善郵遞夫世界一周記	동성문화사	1963
조경희	가깝고 먼 세계	신태양사	1963
손소희	노르웨이의 오슬로에 갔다가	현대문학	1965.7~ 1966.1
김영삼	우리가 기댈 언덕은 없다-120일간의 세계 여행기	동아일보사	1965
김찬삼	끝없는 여로-續·세계일주무전여행기	어문각	1965
이어령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것이 서양이다	현암사	1966
최석림	약동하는 세계 속의 한국: 구주제국을 돌아보고	민중출판사	1966
이병호	北歐의樂園(現地踏査記)	陽友社	1967
이원일	密航世界一周記	봉암사	1967
이영린	逆旅過客: 나의 세계一週記	선명문화사	1968
조병화	내 고향 먼 곳에	중앙출판공사	1969
최석림	30일간의 아미엘(동남아 아프리카 구미기행)	한국정경사	1969
김인순	세계일주견문기	세계일주견문소	1970
전택부	Y맨의 세계일주기-萬里波를 밟 가는 오리	향린사	1971
조병화	별의 시장-아세아 기행 시화집	동화출판공사	1971

김찬삼	세계의 나그네	삼중당	1972
황필호	별거벗은 한국인-황필호세계일주여행기	평화출판사	1972
김제원	繁榮의 구름다리-나의 歐美紀行	문조사	1972
조서희	雲上十萬里 : 世界教育研究視察紀行	교육자료원	1972
이재구	일본견문기: 그들은 왜 잘 사는가	제일문화사	1973
조연현	문학과 사회-빙어리 세계여행	어문각	1973
천경자	남태평양에 가다: 오직 붓과 종이만 의지하고	서문당	1973
천경자	아프리카기행 화문집	일지사	1974
김찬삼	김찬삼의 세계여행(전10권)	삼중당	1975
안중익 외	야성 아마존 기행	일지사	1975
최인호	맨발의 세계일주	예문관	1975
박정선	천사의 편지	광명출판사	1976
손장순	나의 꿈 센터멘탈 저니	문리사	1977
이영희	남미의 기억들	열화당	1977
조연현	나의 해외여행기	어문각	1977
국제펜클럽 한국본부편	中東의 한국인 <sup>34)</sup>	갑인출판사	1977
金星煥	고바우 방랑기-고바우, 세계를 일주하다	민중서관	1978
金喆九	韓國의 시골선비 世界의 뒷골목에 가다	현대해양사	1978
김규태	남태평양 旅程	신원문화사	1978
김광호	나의 세계여행기	문맥	1979
石貞吉	旅想-東南亞 본대로 느낀대로	문화출판사	1979
이병주	바람소리 발소리 목소리-세계기행문	한진출판사	1979
서정주	떠돌며 머물며 무엇을 보러느냐: 미당 세계방랑기(상/하)	동화출판사	1980

우선 주목할 현상은 세계여행의 개인화 양상이다. 여행의 계기나 목적이 순수하게 여행 그 자체를 향유하는 경향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

34) 『중동의 한국인』은 펜작가단이 한아협회의 지원으로 아라비아 사막여행을 다녀와 쓴 기행문집이다. 모운숙의 『사우디에 계신 기능공 노무자 여러분』, 이영희의 『신아라비안 나이트』, 전숙희의 『충격의 人生』, 정연희의 『아랍紀行』, 권일송의 『아라비아 沙漠을 가다』, 송효인의 『두 세계가 交叉하는 곳』, 정한숙의 『中東의 風物』이 수록되어 있다.



한다. 천경자와 최인호의 여행기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기행문은 세계펜클럽대회 등 국제적인 문화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면서 부차적으로 세계여행을 다녀오는 1950-60년대 문인들의 세계여행기와 달리 공적 책무 없이 자유롭게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여행에서 느낀 주관적인 감회와 여행담을 적었다.<sup>35)</sup>

특히 최인호의 『맨발의 세계일주』는 아주 자유분방한 필치로 세계 각국을 주유한 모험담을 솔직하게 담았다. 나치수용소를 방문하고 암스테르담의 안네의 집을 방문하여 역사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지만, 기본적으로 그의 여행기는 각국의 문화에 대한 체험과 감상 위주의 접근과 문학, 음악, 미술 등 예술에 대한 그의 취향과 기호를 표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맨발의 세계일주』의 가장 이채로운 면모는 코펜하겐과 파리, 미국에서 그곳의 섹스 문화에 대한 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장황한 설명을 기술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1970년대 청년문화의 기수로 호명되던 최인호의 자유주의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

손소희의 『노르웨이의 오슬로에 갔다가』는 오슬로에서 개최하는 제32차 국제펜대회에 참석한 여정을 담은 것이다. 국제펜대회의 발표 내용과 현장에 대한 서술이 있지만, 그 양이 매우 약소하고 노르웨이의 이곳저곳을 둘러본 단편적인 느낌을 서술하고 있다. 정치적 문제나 예술의 역사에 대한 별다른 식견이나 설명은 거의 없다.

손장순의 『나의 꿈センチ멘탈 저니』는 1974과 1975년 사이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주 등을 여행한 기행산문집이다. 태국, 인도, 네팔과 이집트, 이디오피아, 케냐, 튀니지,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의 나라들에 서술을 할애하지만, 이들 나라들은 중간 기착지로 상세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주로 여행지에서의 소소한 인상과 체험들, 개인적 기억과 소회가

35) 여행 경비는 언론과 출판사 등의 지원을 받았다. 최인호는 『별들의 고향』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출판사의 권유로 세계여행을 떠났다. 천경자의 두 여행기는 모두 조선일보의 기획과 지원으로 가능했다. 서정주의 세계여행 역시 경향신문의 후원이 있었다.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손소희의 여행기와 그 기초에서 큰 차이가 없다. 천경자의 여행기에서 아프리카와 남태평양의 섬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 의미를 지닌다. 정치나 역사 얘기는 물론 소소한 여행의 에피소드에 대한 서술도 적다. 아프리카와 남태평양의 자연과 사람들에게 받은 인상과 감정을 풀어놓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sup>36)</sup>

한편 이원일의 『밀항세계일주기』는 제목 그대로 노르웨이로 향하는 배에 밀항하여 세계를 떠돌다가 미국에서 CIA에 붙잡혀 귀국한 일반인 여행자의 특이한 기행문이다. 서문에서는 잘사는 나라들의 사정을 살펴 보았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지식 전달보다는 여행에서 흔히 겪는 흥미로운 일화들을 주로 엮었다.

#### 4. 결론

이 논문은 탈식민기(1950~1980)에 생산된 단행본 세계여행기의 흐름과 양상을 일별하여, 시기별 특징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선행연구들에서 탈식민기 세계여행기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이나 서구중심주의 등에 대한 비판적 분석들이 논의되었지만, 아직까지 탈식민기 세계여행기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전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진한 상태다. 본 연구는 탈식민기 세계여행기의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단행본 세계여행기의 전반적인 흐름과 양상을 개관하여 본격적인 후속 연구의 밑거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탈식민기는 세계여행(기)의 시대였다. 문화현상으로서의 세계여행기

36) 실제로 아프리카와 남태평양에서의 여행 체험은 그녀의 미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미영, 『천경자의 세계여행이 여성인물화에 미친 영향』, 『한국문화』 75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의 유행은 세계의 급격한 변화나 주체의 자기 정위가 문제 상황으로 부상하는 것과 연관되는데, 종전 이후 정치적 독립의 열기와 자유의 고취는 세계를 제약 없이 왕래할 수 있는 여행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져 탈식민기 세계여행기의 유행 현상을 낳았다. 탈식민기 세계여행기는 두 가지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 하나는 세계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계몽적 매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순수한 개인적 글쓰기로서 미학적인 매체라는 점이다. 전자는 1950~60년대 세계여행기의 특징이고, 후자는 1970년대 세계여행기의 주된 양상이다.

해방 후 세계여행은 정치인과 파워엘리트 등이 국가 차원의 공식 방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언론인과 학자, 문인과 예술인, 기업인과 종교인 등의 여행도 대개 공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모든 세계여행이 국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또 통제되는 1945-50년대 세계여행기는 국가의 외교 업무와 대외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에 관한 기록으로서 시찰기에 가까웠다. 때문에 여행자는 그 신분과 계층이 매우 한정되어 있고, 특히 세계여행의 방문 지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세계여행기의 주목할 텍스트는 김찬삼의 세계여행기다. 김찬삼의 '세계일주기'는 세계여행기의 분야에서 정전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텍스트로, 그의 등장은 탈식민기 세계여행기의 역사를 그 전과 후로 나누는 분기점이다. 그의 세계여행기는 기본적으로 세계 지역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의 보고였다. 그의 여행서는 세계 각국의 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설명이 원색의 사진과 함께 담겨 있었다. 지리학자로서의 지식과 관점은 정치, 종교, 역사 등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던 기존 여행기와 달리 자연과 기후, 풍물과 문화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객관적인 이해를 제공했다.

또한 김찬삼의 세계여행기는 미국과 유럽의 서술 비중이 적다는 점에서 표면상 서구중심주의적 시각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김찬삼은 유럽과 미국, 일본과 홍콩 등 당대 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지역보다는 세계의

오지를 탐험하고 소개하며 서구중심주의와 냉전 질서에 갇힌 세계 인식의 지평을 폭넓게 확대했다. 그것은 정치와 역사 위주의 지식과 유럽과 미국에 편중된 기존 여행기와 차별화된 김찬삼 여행기의 특징이자 세계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 생생한 여행의 현장감을 원하던 당대 독자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공적인 목적이나 국가의 부국강병 등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적 자아실현을 위한 여행이라는 점과 연관된다.

김찬삼 이후 세계여행기는 탈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여행의 계기나 목적이 순수하게 여행 그 자체를 향유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천경자와 최인호의 여행기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기행문은 세계펜클럽대회 등 국제적인 문화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면서 부차적으로 세계여행을 다녀오는 1950-60년대 문인들의 세계여행기와 달리 공적 책무 없이 자유롭게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여행에서 느낀 주관적인 감회와 여행담을 적었다.

1960-70년대 세계여행기는 구미중심의 지역적 편중에서 벗어나 '세계'의 영역을 확장했다. 내용면에서도 정치 담론이나 교양으로서의 성격에서 벗어난 순수한 여행담이 등장하며 여행기들이 다채롭게 분화했다. 탈식민기 세계여행기의 특성과 문화적 기능은 개별 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이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강옥희 외, 『식민지 시대 대중예술인 사전』, 소도, 2006.
- 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 『상허학보』 34집, 상허학회, 2012, 261-313쪽.
- 김동성, 김희진·황호덕 옮김, 『미주의 인상-조선 청년, 100년 전 뉴욕을 거닐다』, 현실문화, 2015.
- 김미영, 「천경자의 세계여행이 여성인물화에 미친 영향」, 『한국문화』 75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65-96쪽.
- 김옥선, 「여행 서사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과 지역 식민화-1990년대 여행 서사를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14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165-194쪽.
- 남궁진, 「선각자적인 ‘세계정신’을 기리며」, 김찬삼추모사업회 편, 『세계의 나그네 김찬삼』, 이지출판, 2009.
- 민영환, 조재곤 편역, 『해천추범-1896년 민영환의 세계일주』, 책과함께, 2007.
- 심혜경, 「안철영의 『성립기행』에서의 할리우드 그리고 조선영화」, 『동악어문학』 62집, 동악어문학회, 2014, 385-419쪽.
- 우정덕, 「김찬삼의 『세계일주무전여행기(世界一周無錢旅行記)』 고찰: 1960년대 독서 대중의 세계 인식과 연결하여」, 『한민족어문학』 제56권, 한민족어문학회, 2010, 427-455쪽.
- 이어령, 「김찬삼 교수를 추모하며」, 김찬삼추모사업회 편, 『세계의 나그네 김찬삼』, 이지출판, 2009.
- 장세진, 『슬픈 아시아』, 푸른역사, 2012.
- 장인성, 『서유견문-한국 보수주의의 기원에 관한 성찰』, 아카넷, 2017.
- 에밀리 S. 로젠버그 엮음, 조행복·이순호 옮김, 『하버드-C.H.베크 세계사: 1945 이후』, 민음사, 2018.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박옥줄 옮김, 『슬픈 열대』, 한길사, 1998.

<Abstract>

The Opening of the World Tour de Decologies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World Travel  
Time in the Book of Korea

Cha, Sun-Il\*

This paper wanted to examine the trend and aspect of the travel period of the world book produced in the post-colonial period (1950-1980). This study is a basic work for systematic analysis and study of the post-colonial world travel peri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utline the overall flow and aspects of the world travel period in book series to lay the foundation for further study.

The post-colonial world travel season is characterized in two ways. One is that it is an enlightened medium for conveying knowledge about the world and the other is aesthetic for purely personal writing. The former is the hallmark of the 1950s and 60s world travel, and the latter is the main aspect of the 1970s world travel.

In the 1945-50 century, when all world travel was almost wholly dependent and controlled on the state, the World Travel Period was more like an inspection period, a record of the nation's diplomatic and foreign operations.

The notable text of the 1960s world travel season is Kim's world travel period. Kim Chan-sam's 'World Day of the Day' is a text that enjoys a blackout status in the field of world travel, and his

---

\* KyungHee University.

appearance is a turning point that divides the history of post-colonial world travel. His world travel journal was basically a repository of encyclopedic knowledge of the world. Also, Kim Chan-sam's global travel journal is apparently far away from the Westernized view in that it has little narrative interest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fter Kim Chan-sam, the world's tourist plane has been deliberated. Chun Gyeong-ja and Choi In-ho's travel tours freely travel around the world without any official responsibility, recording the subjective feelings and stories of their trips. In the 1960s and 1970s, the world travel era expanded its 'world' territory away from the regional bias in the center of Europe and America. In terms of contents, travel periods diversified in various ways, with stories about politics and pure travel beyond the nature of culture.

Key Wordd: World Travel, World as Culture, World as Art, Kim Chan-sam

- 논문접수 : 2018년 7월 20일
- 심사완료 : 2018년 8월 4일
- 게재확정 : 2018년 8월 17일

